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363장 ..... 다같이

1.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2.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뵙니다
3.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4.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다니엘 3:13-18(표준새번역) ..... 인도자

- 13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 14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 15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 17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 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설 교** .....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 ..... 인도자  
(첨부한 그림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단 그림 이미지의 외부 배포는 안됩니다.  
가정에서만 사용해주세요)

**기 도** ..... **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되  
게 하여 주옵소서!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  
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13-18)

다니엘의 추천에 따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게 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부재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악한 정부는 헛된 데 재정을 투입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었음에도 그는 영적인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재자는 독선과 교만에 빠져 자기 우상화를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왕은 그 신상 낙성식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 관원 등 신민(臣民)을 초청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과 기타 모든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옆드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욕망의 우상, 재물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향락의 우상에 절하라고 유혹하거나 위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이 세 명을 모함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섞어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시련을 당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꼈던지 왕은 분이 가득했지만 즉결처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협을 겸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옆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15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15절). 이때 세 친구는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자신들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왕의 체면을 봐서라도 생각해 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17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분의 능력이 왕보다 강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18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세 친구의 기도가 거절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헌신의 각오입니다.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전천후 신앙입니다. 조건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계획하시며, 우리 생각이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은 기적이거나 보이는 현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는 믿음을 지키다 화형을 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답입니다. ‘Yes’도 응답이지만 ‘No’도 응답입니다. ▶격분한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칠 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왕은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 경외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불꽃은 몸은 물론이요, 머리털과 의복도 손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서’ 건짐 받은 것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원수로부터 고백과 축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세 친구의 지위를 더 높였습니다.



